

# ‘실참’으로 간화선 참뜻 전하는 <무문관> 강론



**무문관 강론**  
우학 스님 지음  
명행 스님 영어번역  
좋은 인연 펴냄  
2만5천원

중국 남송 임제종의 무문 혜개(無門 慧開 · 1183~1260) 선사는 1228년 여름, 동가에 있는 용상사에서 대중들의 수좌로 있을 때, 법을 물어오는 남자들의 청에 따라 옛사람의 공안을 ‘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으로 삼아 각자 근거에 따라 공부하는 이들을 인도했다. 그것들을 간추려 기록하다보니 책 한 권이 되었다. 순서 없이 모은 것이 48칙이 되었다. 그리고 <무문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까지 간화선의 지침서, 또는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린다.

책은 우학 스님의 <무문관> ‘강론’이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불교신문에 연재되었던 ‘우학 스님의 무문관’을 모아 엮은 책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간화선의 참의미를 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미국 뉴욕의 ‘미주현대불교(월간)’에도 연재되어 미주 불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영어권 현지 사람들에게 <무문관>의 전파를 위해 영문 번역을 실었다. 이런 점은 다른 책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국내에 발간된 불교서적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만큼 이례적이다. 미국인 명행 스님이 영어 번역을 맡아 단어 선정, 용어 풀이 등 번역의 정확성을 높였다.

“선종의 문이 없는 관문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

신 가르침은 마음을 으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풀고 나가겠는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고 인연을 따라 얻은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 이루어지면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바람 없이 파도를 일으키는 격이며, 말쑥한 살을 찢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찌 언어나 문자에 매달려 알음알이로 구하리오, 이는 막대기를 휘둘러 달을 치며, 신발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은 꼴이니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는가?”

최고의 수행법이라 할지라도 근본 원리에만 매달

## 간화선의 참의미와 실천법 소개

### “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화두”

### 무문관 선방 <무문관>에서 비롯

### 미주불자 겨냥 영문 번역 실어

려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때문에 실천적 수행의 대표 지침서로 꼽히는 <무문관>은 간화선의 참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그저 말뿐인 말이 아니라, 머리뿐만 이해하는 논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지천에 깔려 있는 화두, 바로 우리의 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화두가 되고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사사 김포도량 무일선원 무문관.

<무문관>은 선가(禪家)에서 간화선의 기본 텍스트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백약록>, <종용록> 등의 선서가 이미 편찬되어 있었지만, 간화선의 종지를 결론적으로 더욱 굳건히 제시한 공간집은 무문 혜개 스님의 이 <무문관>이다. <무문관>에서 제시한 48칙의 공안마다 화두참구하는 방법과 정법의 안목을 열어 주는 자비방편이 가득하다.

무문 혜개 스님은 출가 후 월립 사관 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조주 큰스님의 무자(無字) 화두와 씨름하

였다. 6년이 지나 어느 날 점심공양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다. 스님은 월립 사관 선사로부터 법을 계승한 후 세상에 나와 중생 제도에 진력했다. 보인사를 비롯 여러 사찰의 주지직을 역임하였으니 이(理)와 사(事)를 넘나든 선지식의 행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록에 의하면 스님은 자기가 들어갈 탑을 만들고 곧바로 열반에 들었다. 현재 ‘무문관’이란 특수산방도 <무문관>으로부터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무문관 강론>의 핵심이자 특별함은 ‘실참’이다. 저자인 우학 스님은 현재 경주시 감포읍 ‘무일선원 무문관’ 청정결사 중이다. 무문관 수행은 일체 문 밖 출입을 하지 않으며, 바깥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수행을 말한다. 우학 스님은 3년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해 무문관의 가르침을 ‘실참’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물질적 삶이 필요로워진 만큼 정신적 삶이 함께 필요로워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건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문관>의 가르침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음’과 ‘없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편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o@hyunbul.com**

**우학 스님**은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성파 대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대학에서 선학을 전공했으며 선방, 토굴, 강원 무문관에서 참선 등 정통 수행을 체계적으로 닦아왔다. 성우 대우사로부터 비니(毘尼) 정맥을 이었다. 오래 전부터 간화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선관 쌍수로써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모든 공식 직함을 놓고 무문관 3년 수행 정진 중이다.

## 인간불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

###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간불교란 부처님께서 본래 품은 뜻이지,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만들거나 제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대만의 대표적 사찰인 불광산사를 개창하여 60여 년 동안 부처님이 본래 품으신 뜻인 인간불교를 선양해 온 성운대사가 인간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으로 알기 쉽게 풀었다.

인간불교란 무엇인가. 저자 성운대사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인간세계에서 태어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으므로 사

실 불교 자체가 인간 세계의 불교관입니다. 인간불교란 부처님께서 본래 품은 뜻이지,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만들거나 제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저자는 인간불교를 강조하는가? 기존 불교는 산속에 은둔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많았기에 불교는 ‘소극적이며 세상을 외면한다’는 인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이 현대화되고 시대가 발전함으로 해서 시대에 발맞추어 불교 또한 산중 사찰에서 사회 속으로, 다시 가정으로, 출가자의 불교에서 대중의 불교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불교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법과 생활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라는 것이 인간불교의 핵심 이념이다. 실제로 저자인 성운대사는 이러한 인간불교의 이념으로 불교가 사회에 폭 넓게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책은 한평생 부처님의 법이 인간세계에 단탄하게 뿌리내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긍정하며 실현하도록 애쓰으로써 인간불교를 널리 선양해 온 저자가 인간불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인간불교의 개론서라 할

수 있다. 총 네 단원으로 구성된 책은 첫 번째 장에서 인간 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간불교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개인의 불교가 아니라,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인간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실법하신 인간불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삼귀오계의 인간불교적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민주, 자유, 평등을 인간불교의 주창자인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호 비교하여 그 참뜻에 대해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대승불교 보살도의 핵심서원인 ‘사홍서원’에 대해 인간불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불교는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여 해탈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책은 불교의 본래 목적이 세상과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불교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은 바로 이러한 인간불교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성운대사의 가르침이다. **박재원 기자**

박재원 기자

## 일상의 선 수행 방편들 보다 폭 넓게 응용

### 선학입문

김대현 지음 | 성재현 옮김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만4천원



월창 거사 김대현(?~1870)이 <석선바라밀차제법문>(이하 <선바라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상·하 두 권으로 필사한 것을 1918년에 신문관(新文館)에서 간행한 책 <선학입문>의 교감·역주본이다.

중국 수나라 때 천태 지의대사가 설한 것을 제자 법인이 기록하고 관경이 정리한 <선바라밀>은 10권 3백장 분량이나 되는데도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을 알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교의(敎義) 또한 너무나 광범위 하고 번쇄하여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더욱 알 수 없었다. 이에 김대현이 이 책에 담긴 선 수행의 덕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순서를 매겨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책으로 펴낸 것이 <선학입문>이다. <선학입문>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법례’에 의거하면 월창 거사가 편찬한 구성 의도와 내용 배열에 관하여 알 수가 있다. 곧 지의 대사가 설한 10권의 <선바라밀> 가운데서 3분의 2를 추려내고 나머지 3분의1 요점만 취해 <선학입문>이란 제목을 붙였다.

<선바라밀>에서는 먼저 방편을 설하고 나중에 수정(修證)을 설했지만 <선학입문>에서는 수정을 앞에 두고 방편을 뒤에 두었다. 수정이 바로 근본이고 방편은 곧 지말이기 때문이다. 임식문, 식문, 색문, 방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천태선의 교의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려 했던 <선학입문>의 집필 의도는 이 시기가 동학, 서학 등 다양한 종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임을 고려하면, 외부 종교에 대한 불교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선학(禪學)은 선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명칭은 ‘선학입문’이지만 내용은 입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선 수행의 종류와 실천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의 성격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 역시 그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 그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준비, 실제 수행의 차례·갈래·방편·증과·증험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행 방법과 점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문에서는 임제 종지를 강조하면서 돈오법문을 바탕으로 하여 교외별전 불립문자의 종지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탓에 간화선 일변도의 화두참구로 치우쳐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학입문>의 내용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선 수행의 덕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방편의 가르침을 보다 폭 넓게 접하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1 ~ 8/2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3	깨달음	법륜	정도출판
4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까지	원택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6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7	우리 모두는 부처다	장태평	평세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10	채식이 맛있는지는 우리집 생활음식	정재덕	레시파퍼토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평(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평)**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금강경 묘해妙解**  
묘법문록 송주(頌註)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펴낸 漢·英·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승총림 수석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법 스님(대진 즉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계승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註)를 “화강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long (02)2632-8739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님바나** **화계의 인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뱃목이 될 것인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광,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 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